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44-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 가족인식조사:
가족의 범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

2025. 8. 20.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가족의 범위

자녀, 배우자, 부모는 확실한 ‘우리 가족’,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부모도 절반 이상이 ‘우리 가족’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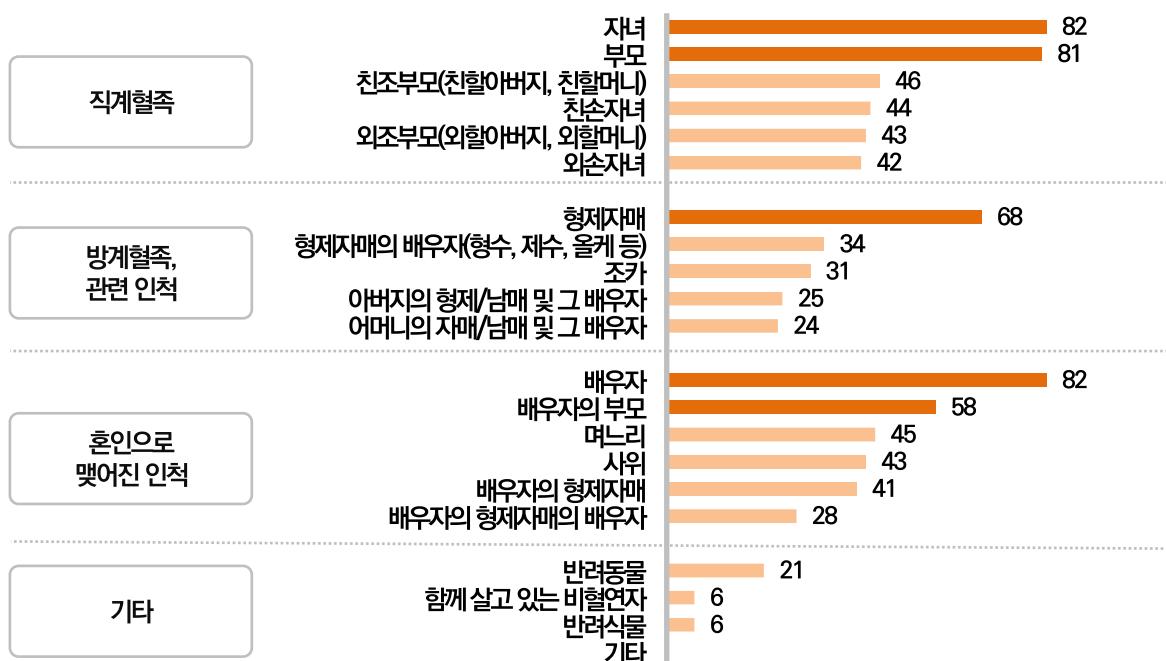
‘우리 가족’에 해당하는 관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았다. 자녀(82%), 배우자(82%), 부모(81%) 까지는 ‘우리 가족’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자녀와 부모는 가장 직접적인 1촌 혈연관계, 배우자는 ‘무촌(無寸)’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관계이기에, 다수가 ‘우리 가족’으로 보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자녀, 배우자, 부모 외에도 형제자매(68%), 배우자의 부모(58%)를 ‘우리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2촌 관계, 결혼을 통해 맺어진 인척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친조부모(46%)와 외조부모(43%), 친손자녀(44%)와 외손자녀(42%) 등 직계 2촌 관계를 ‘우리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사람은 10명 중 4~5명 정도이다. 며느리(45%)와 사위(43%), 배우자의 형제자매(41%) 등 결혼을 통해 관계를 맺는 인척을 ‘우리 가족’으로 포함하는 사람도 10명 중 4~5명이다.

혈족이나 인척 외에, 반려동물을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21%이다. 반려식물,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사람은 6%로 소수이다.

‘우리 가족이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등의 순

(단위 : %)



질문: 다음 중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와 관계없이, 귀하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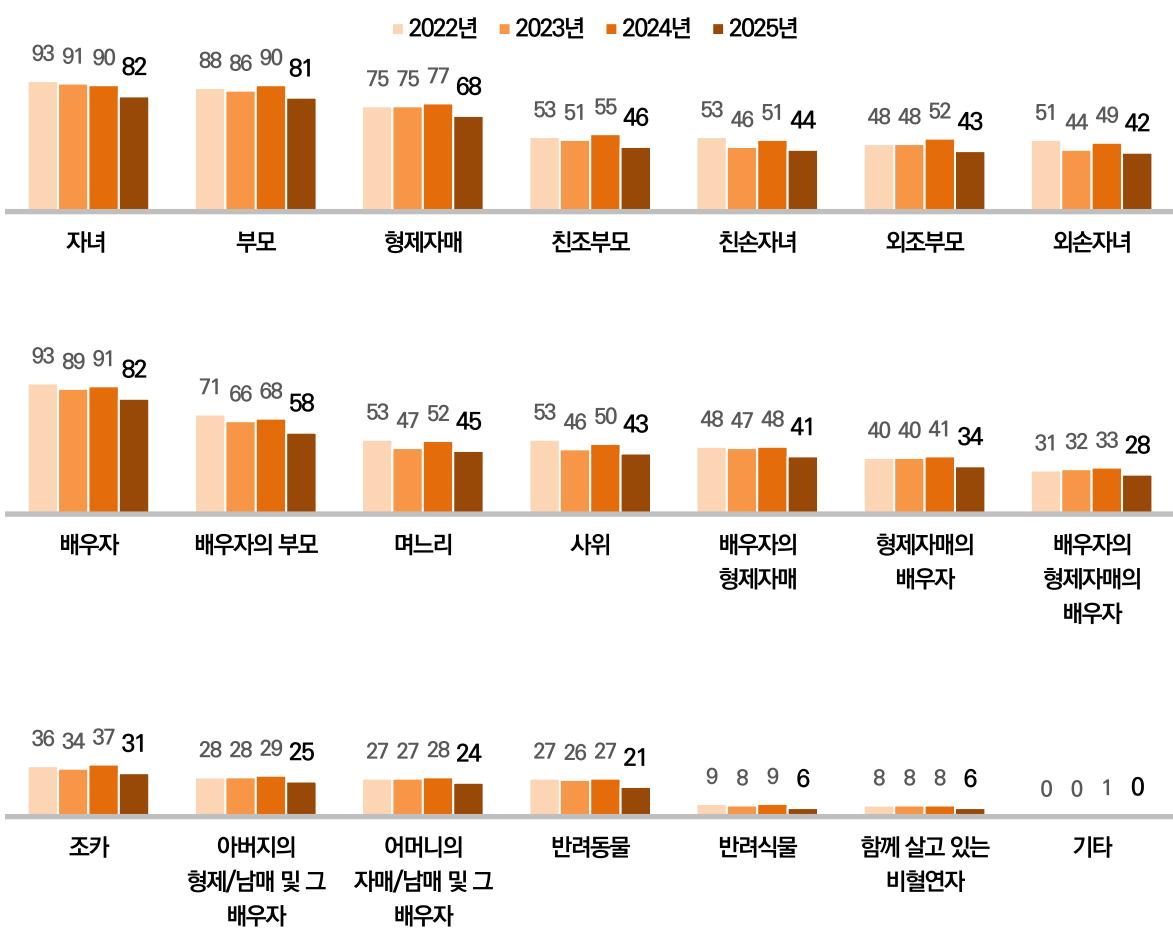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촌수가 가까운 관계일록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또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다만 지난해 결과와 비교하면, 촌수와 관계없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인식하는 응답이 낮아졌다. 자녀(90% → 82%), 배우자(91% → 82%), 부모(90% → 81%) 등 가장 가까운 직계관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68% → 58%), 친조부모(55% → 46%), 외조부모(52% → 43%), 며느리(52% → 45%), 사위(50% → 43%), 조카(37% → 31%), 반려동물(27% → 21%) 등 모든 관계에서 '우리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줄었다. 전 세대에 걸쳐 이러한 감소가 확인되지만,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두자리 수 이상의 큰 감소폭을 보인다. 가족 범위의 전반적인 감소가 이번 조사에서만 확인되는 일시적인 특징일지, 아니면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일지는 내년 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 (2022년 이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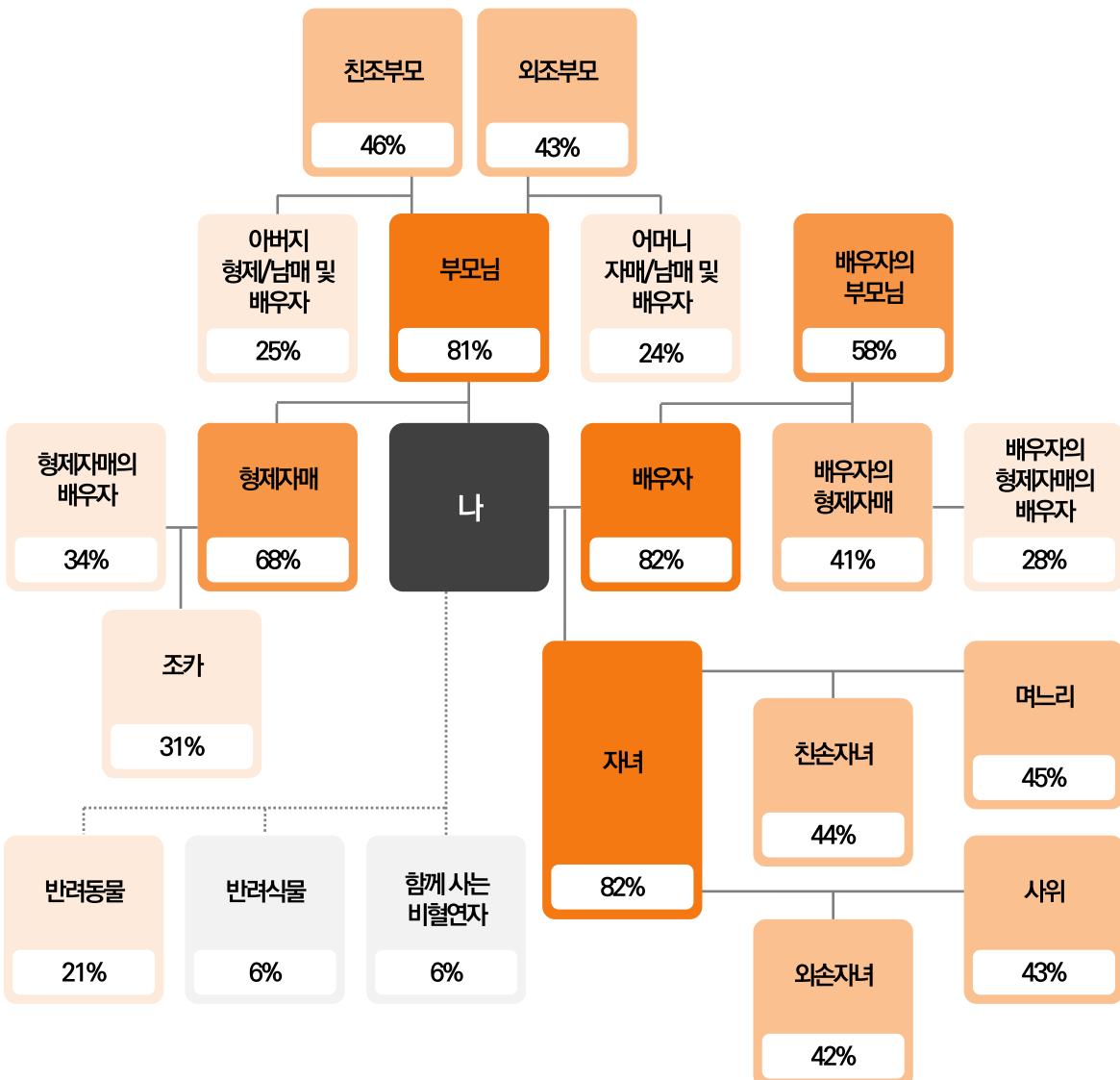
질문: 다음 중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와 관계없이, 귀하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 : 복수응답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 2025. 5. 9 ~ 12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 (2025년 조사결과)



기타: 0%

질문: 다음 중 '우리 가족' 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와 관계없이, 귀하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 :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손자녀 '우리 가족', 반면 2·30대에서는 4명 중 1명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의 부모, 며느리, 사위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응답 낮아 30대 이하, 미혼 응답자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은 나의 가족'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와 관계없이'라는 단서를 붙여 개인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우리 가족'의 범위를 물었으나, 생애주기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인식에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어 있다.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를 '우리 가족'이라고 인정하지만, 2·30대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친손자녀·외손자녀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에 대해서도 2·30대 젊은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식차이가 뚜렷하다.

고령층이 젊은층에 비해서는 다양한 친인척과 만나고 교류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경험이 가족 범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에서 조카, 아버지의 형제/남매 및 배우자, 어머니의 자매/남매 및 배우자 등 3촌 이상 관계를 '우리 가족'에 포함하는 사람의 비율은 5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본인 및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관계의 확장을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는 두드러진다.

18~29세는 35%, 30대는 38%가 반려동물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2·30대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응답이 40대 이상보다 높은 관계는 형제자매와 함께 반려동물이 유일하다. 2·30대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보는 경향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된다면, 혈연에서 정서적 유대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 재편이 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손자녀를 '우리 가족'에 포함하지만, 2·30대에서는 4명 중 1명만 포함 생애주기에 따른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단위 : %)

사례수 (명)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조부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손자녀	외조부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손자녀
전체	(1,000)	82	81	68	46	44	43	42
성별								
남자	(495)	82	84	72	50	47	46	44
여자	(505)	83	78	65	41	42	40	40
연령								
18~29세	(153)	78	89	84	41	27	43	27
30대	(150)	76	83	72	38	27	38	26
40대	(173)	86	81	66	41	36	40	35
50대	(195)	87	82	71	50	51	49	48
60대	(178)	83	75	58	50	59	44	54
70세 이상	(151)	82	75	59	53	63	42	56
혼인상태								
미혼	(330)	75	87	80	42	29	42	28
배우자 있음	(561)	87	79	64	48	54	44	50
사별, 이혼	(109)	79	70	57	44	40	40	39

질문: 다음 중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와 관계없이, 귀하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 :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응답도 높아
30대 이하, 미혼 응답자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도 나의 가족'

(단위 : %)

		사례수 (명)	배우자 (남편, 아내)	배우자의 부모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수, 제수, 율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택 등)
전체	(1,000)	82		58	45	43	41	34	28
성별									
남자	(495)	82		64	48	46	48	40	33
여자	(505)	83		52	42	41	34	29	23
연령									
18~29세	(153)	79		44	29	28	31	27	20
30대	(150)	81		53	30	29	38	30	21
40대	(173)	85		60	36	35	42	36	29
50대	(195)	85		67	50	50	49	43	36
60대	(178)	81		61	59	56	46	33	29
70세 이상	(151)	83		58	64	59	38	36	31
혼인상태									
미혼	(330)	75		46	32	31	31	30	20
배우자 있음	(561)	89		68	54	51	50	39	35
사별, 이혼	(109)	69		44	40	40	24	25	14

		사례수 (명)	조카(친조카, 배우자의 조카)	아버지의 형제/남매 및 그 배우자	어머니의 자매/남매 및 그 배우자	반려동물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반려식물	기타
전체	(1,000)	31		25	24	21	6	6	0
성별									
남자	(495)	36		32	29	17	6	4	1
여자	(505)	25		18	19	25	6	7	0
연령									
18~29세	(153)	30		25	27	35	16	12	0
30대	(150)	28		21	21	38	6	6	1
40대	(173)	35		23	23	17	3	5	0
50대	(195)	37		30	30	19	5	8	0
60대	(178)	27		24	20	14	4	2	0
70세 이상	(151)	26		27	25	5	4	1	1
혼인상태									
미혼	(330)	34		25	25	33	11	9	1
배우자 있음	(561)	30		26	25	16	4	4	0
사별, 이혼	(109)	23		18	18	12	3	3	1

질문: 다음 중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와 관계없이, 귀하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 :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자녀, 배우자, 부모는 성별이나 연령대, 혼인상태 등과 관계없이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 다수

형제자매와 반려동물은 연령대 낮을수록 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연령대 높을수록 가족의 범위도 넓은 편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전체 (1,000)	자녀 (82%)	배우자 (82%)	부모 (81%)	형제자매 (68%)	배우자의 부모 (58%)	친조부모 (46%)	며느리 (45%)	친손자녀 (44%)	사위 (43%)	외조부모 (43%)
성별										
남자 (495)	부모 (84%)	배우자 (82%)	자녀 (82%)	형제자매 (72%)	배우자의 부모 (64%)	친조부모 (50%)	배우자의 형제자매 (48%)	며느리 (48%)	친손자녀 (47%)	외조부모 (46%)
여자 (505)	자녀 (83%)	배우자 (83%)	부모 (78%)	형제자매 (65%)	배우자의 부모 (52%)	며느리 (42%)	친손자녀 (42%)	친조부모 (41%)	사위 (41%)	외손자녀 (40%)
연령										
18~29세 (153)	부모 (89%)	형제자매 (84%)	배우자 (79%)	자녀 (78%)	배우자의 부모 (44%)	외조부모 (43%)	친조부모 (41%)	반려동물 (35%)	배우자의 형제자매 (31%)	조카 (30%)
30대 (150)	부모 (83%)	배우자 (81%)	자녀 (76%)	형제자매 (72%)	배우자의 부모 (53%)	외조부모 (38%)	친조부모 (38%)	배우자의 형제자매 (38%)	반려동물 (38%)	며느리 (30%)
40대 (173)	자녀 (86%)	배우자 (85%)	부모 (81%)	형제자매 (66%)	배우자의 부모 (60%)	배우자의 형제자매 (42%)	친조부모 (41%)	외조부모 (40%)	며느리 (36%)	형제자매의 배우자 (36%)
50대 (195)	자녀 (87%)	배우자 (85%)	부모 (82%)	형제자매 (71%)	배우자의 부모 (67%)	친손자녀 (51%)	친조부모 (50%)	며느리 (50%)	사위 (50%)	배우자의 형제자매 (49%)
60대 (178)	자녀 (83%)	배우자 (81%)	부모 (75%)	배우자의 부모 (61%)	친손자녀 (59%)	며느리 (59%)	형제자매 (58%)	사위 (56%)	외손자녀 (54%)	친조부모 (50%)
70세 이상 (151)	배우자 (83%)	자녀 (82%)	부모 (75%)	며느리 (64%)	친손자녀 (63%)	사위 (59%)	형제자매 (59%)	배우자의 부모 (58%)	외손자녀 (56%)	친조부모 (53%)
혼인상태										
미혼 (330)	부모 (87%)	형제자매 (80%)	배우자 (75%)	자녀 (75%)	배우자의 부모 (46%)	외조부모 (42%)	친조부모 (42%)	조카 (34%)	반려동물 (33%)	사위 (31%)
배우자 있음 (561)	배우자 (89%)	자녀 (87%)	부모 (79%)	배우자의 부모 (68%)	형제자매 (64%)	친손자녀 (54%)	며느리 (54%)	사위 (51%)	배우자의 형제자매 (50%)	외손자녀 (50%)
사별·이혼 (109)	자녀 (80%)	부모 (70%)	배우자 (69%)	형제자매 (57%)	친조부모 (44%)	배우자의 부모 (44%)	친손자녀 (40%)	며느리 (40%)	사위 (40%)	외조부모 (40%)

질문: 다음 중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와 관계없이, 귀하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 : 복수응답, 각 특성별로 '가족이다' 응답이 많은 10개 항목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2 자주 만나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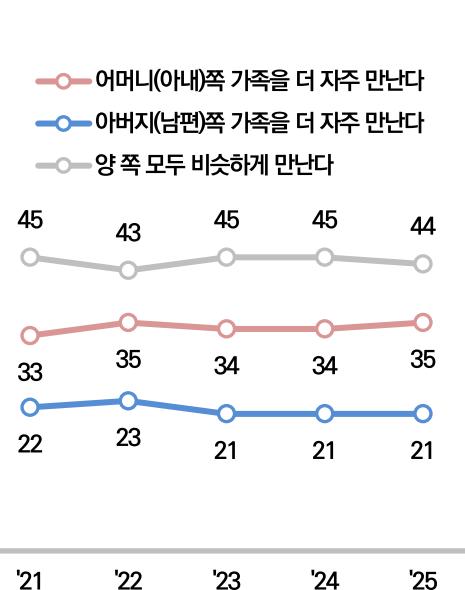
어머니(아내)쪽 가족 더 자주 만난다 35%, 아버지(남편)쪽 가족 더 자주 만난다 21% 2021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

미혼·이혼 상태인 사람에게는 아버지 쪽 가족과 어머니 쪽 가족 중 어느 쪽을 더 자주 만난는지, 기혼·사별 상태인 사람에게는 남편 쪽 가족과 아내 쪽 가족 중 어느 쪽을 더 자주 만난는지를 물었다. '양 쪽 모두 비슷하게 만난다'는 사람이 44%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어머니(아내)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는 사람이 35%, 아버지(남편)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는 사람이 21%이다. 2021년 이후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어, 우리 사회가 부계 중심에서 탈피해 균형적 가족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어머니(본인)쪽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이 39%로 아버지(남편)쪽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17%)의 두 배이다. 반면 남성은 어머니(아내)쪽 29%, 아버지(본인)쪽 2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혼 혹은 이혼 상태인 사람은 어머니 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는 사람이 39%, 아버지 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는 사람이 23%, 양 쪽 모두 비슷하게 만난는 사람이 37%이다. 기혼·사별인 사람도 아내 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이 31%로, 남편 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19%)보다 많다.

어머니(아내)쪽 가족 더 자주 만난다 35%, 아버지(남편)쪽 가족 더 자주 만난다 21% 2021년 이후 큰 변화 없어… 부계 중심 사회에서 균형적 가족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상징



2025년 조사	사례수 (명)	어머니쪽 가족		양 쪽 모두 비슷
		(아내쪽 가족)	(남편쪽 가족)	
전체	(1,000)	34	21	45
성별				
남자	(494)	29	24	48
여자	(506)	39	17	43
연령				
18~29세	(159)	38	31	32
30대	(149)	40	21	39
40대	(177)	37	17	46
50대	(196)	35	19	46
60대	(173)	30	16	54
70세 이상	(146)	23	20	57
혼인상태				
미혼·이혼	(366)	39	23	37
기혼·사별	(634)	31	19	50

질문 :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쪽 가족과 더 자주 만나십니까? 미혼·이혼이신 분들은 부모님을 기준으로 아버지쪽 가족/어머니쪽 가족을 생각하고, 기혼·사별이신 분들은 본인을 기준으로 남편쪽 가족/아내쪽 가족을 생각하고 응답해주세요.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6. 17 ~ 21 //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 2025. 5. 9. ~ 12.

3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

국제결혼·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다수가 정상가족으로 인정 동성가족에 대해서는 정상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56%로 절반 이상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정상’으로 여겨졌던 3세대 확장가족이 이제는 소수가 되었고,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 또한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족 형태를 수용 가능한 형태로 보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재혼·입양·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국제결혼·다문화가족(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한국사람이 결혼해 형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은 84%, 재혼가족(이혼이나 사별 후 다시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과 입양가족(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입양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은 각각 83%이다. 이들 가족 형태를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은 본 문항을 처음 묻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꾸준히 8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가족은 결합 방식만 다를 뿐, 전통적인 부모-자녀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 혹은 자녀가 부재한 가족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 한부모가족(어머니와 자녀,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에 대해서는 75%가, 무자녀가족(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에 대해서는 71%가 정상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부모가족과 무자녀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2022년 이후 꾸준히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조손가족(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에 대해서도 정상가족이라는 인식이 60%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2025년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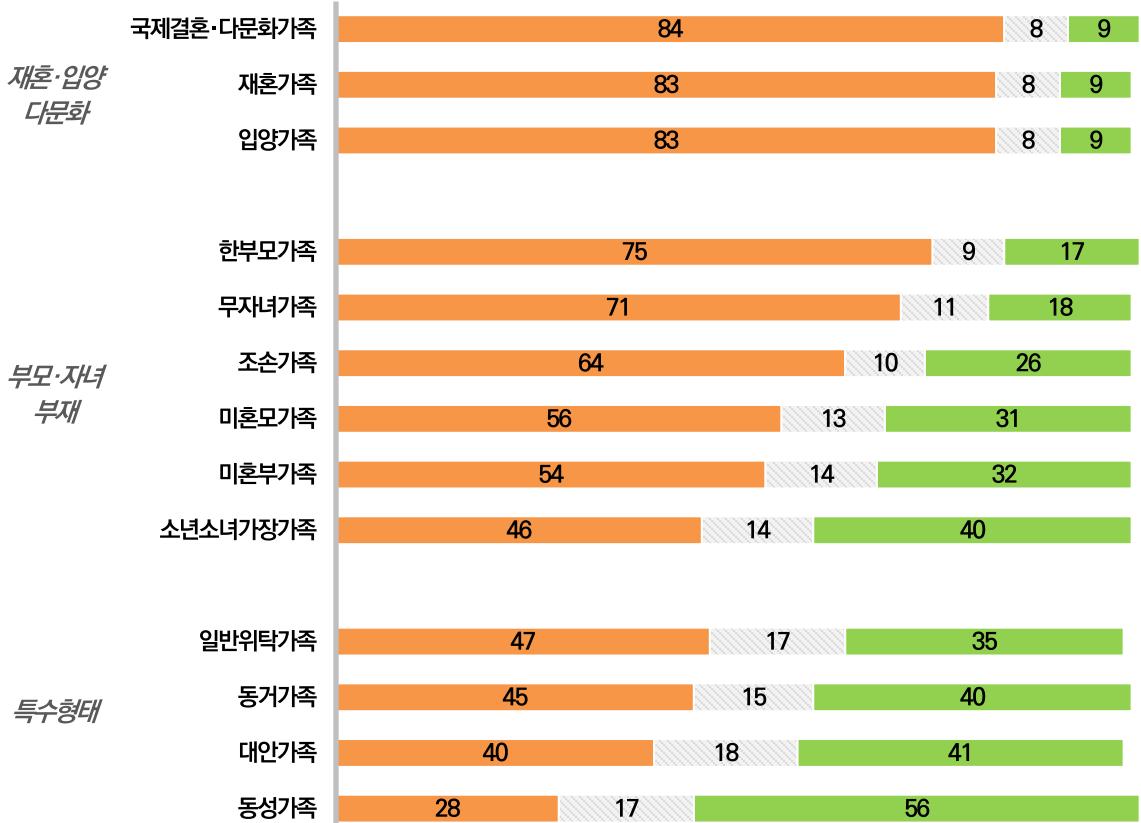
앞선 세 가지 가족형태에 비해서는 의견이 다소 나뉘지만, 미혼모가족(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56%)과 미혼부가족(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54%)에 대해서도 정상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는다. 다만, 소년소녀가장가족(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족)에 대해서는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46%)과 그렇지 않다는 인식(40%)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들 여섯 가지 가족 형태는 부모-자녀 중 일부가 부재하기는 하지만,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라는 측면에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양한 특수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일반위탁가족(친부모의 사정으로 아이를 기를 수 없어,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아이를 맡아 대신 기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47%가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35%)을 12%포인트 앞선다. 반면 동거가족(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 45%)과 대안가족(혈연·결혼·입양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살며 생계를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40%)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 부부의 성별이 동일한 동성가족에 대해서는 56%가 정상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해, 정상가족(28%)이라는 의견보다 두 배 높다. 항목으로 제시한 13가지 가지 가족의 형태 중, 부정적인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가족형태는 동성가족이 유일하다. 동성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이들 네 가지 가족형태는 혈연, 혼인 등 전통적인 결합 방식에서 벗어나는 가족이기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다수가 정상가족으로 인정
동성가족에 대해서는 정상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56%로 절반 이상

(단위 : %)

■ 정상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 잘 모르겠다 ■ 정상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



질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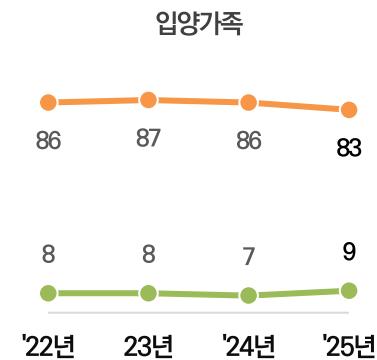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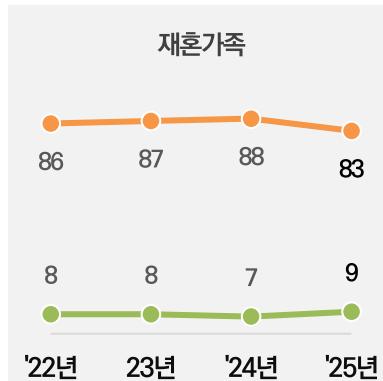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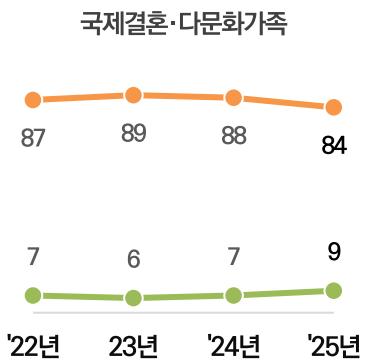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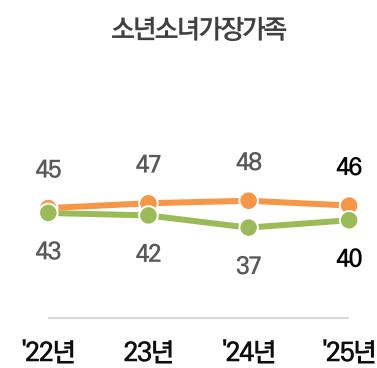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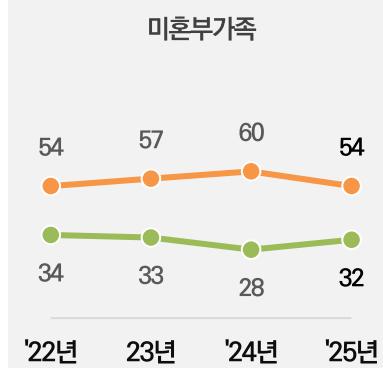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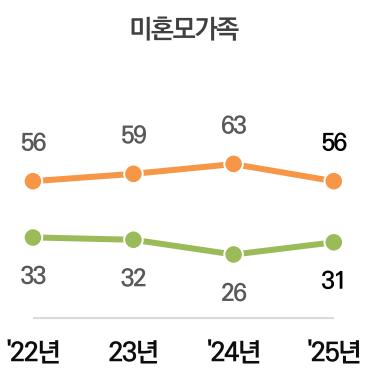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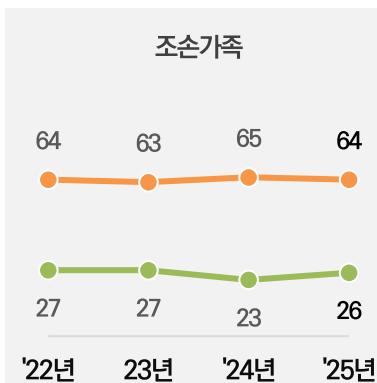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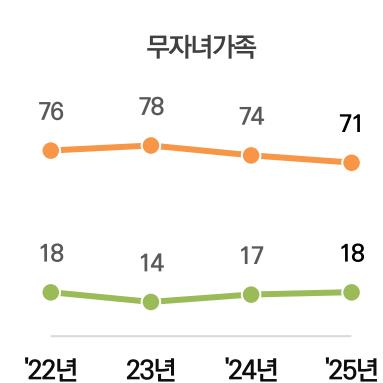
재혼·입양·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수용성 높아… 부모 혹은 자녀가 부재한 가족 형태도 수용성 높은 편

재혼·입양·다문화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 응답(%)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 응답(%)



부모·자녀 부재



질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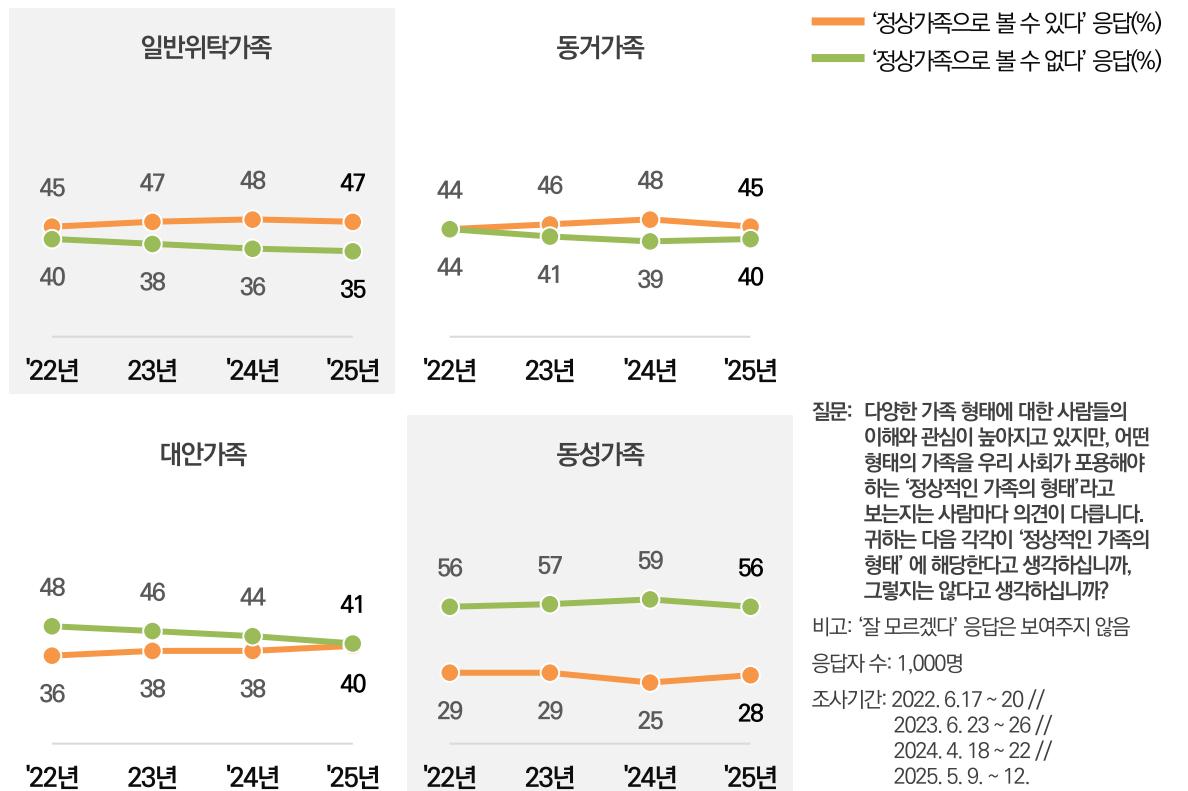
비고: ‘잘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 2025. 5. 9. ~ 12.

혈연 혹은 법적 혼인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수용도 높지 않아
특히 동성가족에 대해서는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다수

특수형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성이 남성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18~29세에서는 남녀간 격차 커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18~29세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크다. 18~29세 여성은 항목으로 제시한 13개 가족형태 모두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높고, 특히 동성가족에 대해서도 69%가 정상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해 동년배 남성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여성들의 인식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18~29세 남성 중에서는 57%만이 국제결혼·다문화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며, 무자녀가족(52%), 미혼모가족(44%), 소년소녀가장가족(35%), 동거가족(25%), 동성가족(11%)에 대해서도 낮은 수용성을 보인다.

재혼이나 입양, 다문화가족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틀 내에서의 변형과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높은 수용도를 보이지만,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동거가족, 대안가족, 동성가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가 확인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18~29세에서는 남녀간의 차이도 명확하다.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만, 가족 다양성 이슈가 사회갈등의 소재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18~29세에서 남녀간 격차 커
진보층, 미혼 응답자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도 높아

(단위 : %)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볼 수 있다’ 응답	재혼·입양·다문화				부모·자녀 부재						특수형태			
	사례수 (명)	국제 결혼·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조손 가족	미혼모 가족	미혼부 가족	소년 소녀 가장 가족	일반 위탁 가족	동거 가족	대안 가족	동성 가족
		재혼	입양	가족										
전체	(1,000)	84	83	83	75	71	64	56	54	46	47	45	40	28
성별														
남자	(495)	80	81	78	70	62	58	50	48	45	44	42	36	19
여자	(505)	87	85	88	79	79	69	62	60	47	50	48	45	36
연령														
18~29세	(153)	76	84	81	80	73	75	59	57	46	54	42	44	39
30대	(150)	83	79	85	79	79	70	62	61	49	53	48	42	35
40대	(173)	87	85	83	79	79	65	64	64	51	44	51	44	34
50대	(195)	85	83	83	79	73	64	58	58	50	47	47	42	27
60대	(178)	85	85	82	65	61	55	47	45	36	45	42	37	17
70세 이상	(151)	83	80	84	65	60	56	44	40	42	42	39	34	16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0)	57	75	68	67	52	60	44	45	35	36	25	31	11
여자_18~29세	(73)	96	95	95	93	96	92	74	70	58	74	60	57	69
남자_30대	(78)	85	84	83	77	75	68	57	58	53	56	49	35	25
여자_30대	(72)	82	75	87	81	83	72	68	66	46	49	47	49	45
남자_40대	(88)	87	83	78	74	72	61	58	59	49	42	51	40	27
여자_40대	(85)	87	87	88	83	85	68	70	69	54	46	52	48	42
남자_50대	(98)	85	84	81	78	68	63	53	54	53	42	46	38	22
여자_50대	(97)	85	82	86	81	79	64	64	62	48	52	48	46	31
남자_60대	(87)	85	85	80	61	57	49	45	39	38	46	47	39	14
여자_60대	(91)	85	85	83	69	65	61	50	50	35	43	38	34	20
남자_70세 이상	(64)	78	74	77	59	46	45	39	30	39	43	34	28	13
여자_70세 이상	(87)	88	85	90	69	71	64	48	47	45	41	43	38	19
이념성향														
진보층	(265)	93	91	90	83	80	73	67	64	56	55	59	50	43
중도층	(352)	81	81	82	73	71	61	55	55	46	49	43	39	25
보수층	(350)	80	80	79	71	64	61	49	48	41	42	38	36	19
혼인상태														
미혼	(330)	80	82	81	79	76	72	62	63	49	54	48	48	38
배우자 있음	(561)	86	84	84	72	70	60	52	51	45	44	43	35	23
사별, 이혼	(109)	82	79	83	72	63	58	55	48	41	42	46	44	21

질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볼 수 있다’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4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35,159명, 조사참여 1,61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8%, 참여대비 62.0%)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5월 9일 ~ 5월 12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